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인도남아시아 권역

모기조차 잡지 않는 나라, 스리랑카

정현정

여러분들은 모기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모기를 보면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기를 쫓아다니는데요. 사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모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기로 모기를 잡는 제품을 개발할 정도로 모기를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모기를 잡지 않고, 손으로 포개어 바깥으로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스리랑카 사람들인데요. 생명을 중시하는 불교 문화를 철저히 지키는 스리랑카에서는 모기를 잡지 않고, 바깥으로 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모기에 물리더라도 모기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잡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저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계시지만, 매년 여름마다 모기향을 피우시고, 모기를 잡는 것을 꾸준히 봐왔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모기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생명이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평소 저에게 위해가 되는 벌레는 별 생각없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모기’라는 생명마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와 한국은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스리랑카는 인구 중 70%, 한국은 인구 중 17%(종교없음 50% 감안)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스리랑카와 한국, 둘 다 불교가 종교적으로 꽤나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실 한 종교를 믿는 신자들끼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이러한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는 모기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흉’이라 여기고, 까마귀 떼를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리랑카에는 온 거리마다 까마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까마귀’는 길운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길바닥에 종이를 깔아 먹던 밥 또는 군것질 거리들을 두고 가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비둘기가 가장 많은 한국을 예로 들자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던 밥을 싸와 길바닥에 놔주는 셈입니다. 평소 비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스리랑카 문화가 정말 달갑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

들은 해당 문화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같은 모든 생명을 아끼기에 꼭 해야 할 의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또한 현재 다양한 의견으로 갈리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까마귀에게도 꼬박꼬박 밥을 챙겨 주다니,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운 스리랑카 사람들의 행동이었고, 모든 행동들이 유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종교를 더불어 ‘스리랑카 사람들의 따뜻함’을 함께 느끼고 난 후에야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외환위기, 기름부족, 식량난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필요한 식재료를 가져오거나 요리를 해서 나눠 먹는 등 서로서로를 도왔고,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에게 먹을 음식까지 길거리에 두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온 지 5개월만에 국가부도가 났고, IMF에 구제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와중, 저는 저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생명을 중시한다는 생각과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서로를 도왔고 심지어 외국인인 저에게도 직장동료들은 부모님께서 해준 음식을 회사에 가지고 와 선물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부도, IMF에 앞서 외국인 보다는 현지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저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고,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런 시기에 오게 돼서 미안하기

도 하고, 너가 불편함을 겪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한국의 모기 같은 존재가 되어, 이방인이기에 도움에 있어 제외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들을 도움을 받은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유난이 아니었던 것ですよ. 또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을 유난이라고 느꼈던 제 자신이요. 모기를 쉽게 잡지 않는 것, 굳이 까마귀, 길거리 강아지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은 불교라는 종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를 실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뉴스로만 스리랑카를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언론보도를 통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스리랑카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들의 순수함과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만큼, 아니 이들보다 더 스리랑카가 경제난을 꼭 이겨내기를 자국민처럼 간절히 바랄 만큼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상황 속 이들에게 받았던 따뜻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